

'24절기' 자연의 시간 살아낸 여인들의 삶

ACC 창제작 공연 '마디와 매듭'
10월 7일~8일 예술극장 극장2
'웅이진 마음' 춤·노래로 형상화

24절기는 계절을 세분한 것으로 입춘부터 대한 까지를 아우른다. 일반적으로 태양이 1년 동안 하늘을 한 바퀴 도는 길에 따라 변하는 기후의 표준과 관련돼 있다. 여기에는 자연이 부여하는 일종의 질서와도 맞물린다.

우리네 어머니와 여인들은 절기에 따라 자신들의 몸을 맞춰왔다. 가족과 자식을 위해 고난한 삶을 살아야 했던 여인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투영돼 있다.

'24절기' 여성의 삶을 다룬 작품이 무대 위에 펼쳐진다. 아시아스토리 창·제작 일환으로 제작된 '마디와 매듭'이 그것.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절기를 맞고 보내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춤과 노래로 엮은 작품을 선보인다. 오는 10월 7일(오후 7시 30분)·8일(오후 3시, 오후 7시) ACC 예술극장 극장2.

이번 작품은 ACC가 지난 2020년 제2회 아시아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하고 아시아 여성들이 겪는 차별에 대해 이야기 한 '아시아인들이 죄송합니다'(공규리)를 시상했다. 공모전을 통해 '아시아 여성들의 삶'을 공연 키워드로 발굴해 이를 모티브로 공연 제작에 돌입했다. 지난해 쇼케이스를 펼쳐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공연에는 정영두를 비롯해 배삼식, 최우정 등 연출과 안무, 극작, 음악 등 동시대 최고로 평가받는 이들이 제작에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음악극 '적로'에서 첫 호흡을 맞춘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출과 안무를 맡은 정영두는 근현대 한국 문학 작품에 나타나 있는 여인들의 이미지에 주목했다. 그리고 본인의 할머니와 어머니 등 가까운 여인들의 삶에서 절기에 맞춘 모습들을 작품에 투영시켰다.

여인들은 자연의 변화에 이끌리보다 몸과 마음으로 감각하며 조응했다. 고달픈 삶 속에서도 절기마다 인내와 지혜로 삶을 살아내는 여인들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잔잔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작품의 큰 틀은 24절기 중 동지부터 하지까지 13개 절기의 풍경과 세시 풍속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선보였던 '마디와 매듭' 쇼케이스 장면. <ACC 제작>



연출 정영두

시간의 마디마디마다 서려진 여인들의 '웅이진 마음'은 춤과 노래로 형상화된다. '포그트 아파트', 창극 '리어' 등을 작업한 정영두는 각 절기를 고유한 약장으로 마무리하는 한편 13절기를 분절이 아닌 연속된 하나의 이야기로 구현했다.

또한 극본을 맡은 배삼식 작가는 다양한 연령대의 여인들을 화자로 등장시켜 절기에 따른 일상의 모습과 개인들의 심리를 정치하면서도 시적인 가사로 풀어냈다.

주인공과 내러티브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전적인 전통극과 달리 다양한 연령대의 여인들을 화자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시조장도 나오고 사투리 독백도 울려 퍼진다. 한마디로 우리 말과 우리 정서를 베이스로 하면서 리듬감까지 갖



극본 배삼식



음악 최우정

다. 여기에 풍경과 여인들의 심리를 조형적으로 빛어낸 무용단까지 더해 공연은 입체적인 작품으로 수렴된다.

전석 2만원. 예매는 ACC누리집과 전화상담실(1899-5566)에서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창 출신 이정연 소설가, 수림문학상 수상

'속도의 안내자'...상금 5천만원

고창 출신 이정연(사진) 소설가가 제10회 수림문학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장편 '속도의 안내자'이며 상금 5000만원.

이번 장편은 추리 소설의 형식을 토대로 사회비판적인 면모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시의성은 물론 사건의 설정, 서사의 구체성 등에서 기량을 인정받았다.

수림문학상 심사위원단은 본심에 오른 다섯 편을 심사한 결과 이정연 작가의 '속도의 안내자'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설은 경마장 도끼 검사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주인공인 아르바이트생이 의문의 '약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렸다.

심사위원단은 "이 작품의 서사는 때로 부모의



죽음과 고모의 돌봄을 둘러싼 추리소설의 외양을 띠면서 자본과 기술의 논리 아래 영원한 생명과 젊음을 욕망하는 다양한 인물 군상들의 일그러진 음화를 적나라하게 재현한다"고 평했다.

이정연 작가는 지난 2017년 문예중앙에 단편 '2405 택시'로 등단했으며 2020년 장편 '천장이 높은 식당'을 펴냈다. 동국대 정보통신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다. 대학 졸업 후 한국마사회에서 근무했다.

한편 수림문학상은 수림문화재단과 연합뉴스가 함께 운영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연합뉴스

3인 3색 가을 밤 채우는 가야금 선율

목요일연국악한마당, 10월6일 빛고을국악전수관



가연하비 가야금연주단 공연 모습.

선선한 가을 밤을 가야금 선율로 적실 힐링 연주회가 열린다.

제 716회 목요일연국악한마당 '3인3색'이 오는 10월 6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는 가야금 연주단 '가연하비'를 초청한다. 지난 2008년 창단한 가연하비는 전통음악을 보존 및 전승하고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이는 단체다.

이번 국악 한마당에서는 김죽파 선생의 '김죽파

류 가야금산조'와 25현 가야금 독주곡 '가야금이 있는 풍경', 모란적 그림날의 밤을 표현한 '그림지다', 북한 음악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황금산의 백도라지', 경상도 민요 밀양아리랑의 편곡 버전인 '아랑의 꿈'을 펼친다.

총 130석 선착순 좌석으로 운영되며 관람료 무료. 공연은 '빛고을국악전수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람할 수도 있다. 문의 062-350-4557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강진 해남윤씨 추원당·영모당 보물된다

문화재청, 고흥 여산송씨 쌍충 정려각 등 10건 지정 예고

강진 해남윤씨 추원당과 영모당, 고흥 여산송씨 쌍충 정려각이 국가지정문화재로 보물된다.

문화재청은 추원당과 영모당, 정려각 등 10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강진 해남윤씨 추원당은 해남윤씨 10세 윤사보와 11세 윤경 부자를 모시는 재실이다. 1649년 무렵 고산 윤선도의 주도로 창건했

며 중수를 거쳐 현재에 이른다. 추원당은 팔작지붕으로 수준 높은 목수 기술을 보여주는 강당이다.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견출 기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강진 해남윤씨 영모당은 해남윤씨의 증시조인 8세 윤광전과 9세 윤단봉, 윤단학 형제 등 3위를 모신 건물이다. 전체가 마루방으로 된 강당으로, 18세기 지방 건축을 이해하는 데 중요

한 자료다.

고흥 여산송씨 쌍충 정려각은 여산송씨 출신 송대립과 그의 아들 송심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전공을 세우고 순절한 것을 기려 조정에서 내려준 정려다. 1704년(숙종 30년) 정려각 건립 이후, 여러 차례 수리와 정비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려각은 조선 후기 국가 통치 수단을 비롯해 지역 향촌사회사 등 당대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건물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사상' 50주년 600호 특대호 발간

"척박한 땅에서 움튼 시대정신"...문화예술계 116명 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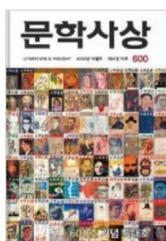
고(故) 이여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 장간을 주도한 월간 문예지 '문학사상'이 다음 달 1일 600호 기념 특대호를 발간한다. 1972년 10월 통권 1호를 펴낸 지 50년 만이다.

문학사상은 "1972년 10월, 척박한 땅에서 움튼 한 권의 시대정신은 반세기 동안 곳곳이 같은 자리를 지켜냈다"며 "2022년 10월, 이제 육백 번째 문을 연다"고 밝혔다.

문학사상은 현대문학, 창작과비평 등과 함께 한국 문학계를 이끈 대표 문예지로 반세기를 보냈다. 이여령 전 장관이 창간호를 시작으로 13년간 주간을 맡았다.

600호에는 처음 마음을 새기고자 통권 1호의 창간사를 첫 페이지에 실었다.

창간사는 "상처진 자에게는 붓대와 같은 언어가 될 것이며, 폐를 열고 있는 자에게는 신선한 초원의



습과 문학사상에 최초 공개된 이상의 미공개 사진, 김소월의 자필 유고시, 박두진의 미발표 시, 조지 오웰의 사진첩, 김동리와 권환의 단편소설, 채만식의 희곡 등을 발굴한 지면을 실었다.

바람 같은 언어가 될 것이며, 역사와 생을 배반하는 자들에게 창끝 같은 도전의 언어, 불의 언어가 될 것이다"였다. 문학사상이 50년간 담아온 주요 콘텐츠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게오르그 마르케스 등의 모습과 문학사상에 최초 공개된 이상의 미공개 사진, 김소월의 자필 유고시, 박두진의 미발표 시, 조지 오웰의 사진첩, 김동리와 권환의 단편소설, 채만식의 희곡 등을 발굴한 지면을 실었다. /연합뉴스

영화로 배우는 음악 '굿모닝, 뮤직 in 시네마'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10월15일~11월 12일

영화를 통해 음악을 배워볼 수 있는 강좌가 열린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영화를 보며 관련 음악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 '굿모닝, 뮤직 in 시네마'를 10월 1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한다. 25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오전에 2시간씩 총 4회차로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에서 진행된다.

각 회차별로 '파리넬리', '프리티 우먼', '미션', '불멸의 연인' 등 음악을 주제로 한 영화를 주제로 한다. 비용은 무료.

강사로는 팻캐스트 '클래식 피크닉'을 진행하는 '줄리정'이 함께 해 영화 속 등장하는 명장면과 함께 클래식을 설명한다.

강좌 신청은 다음달 7일까지이며 신청순 50명 내외를 모집한다. 신청 방법으로는 광주문화예술



줄리정

회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담당자 이메일(5291125@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613-8246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